

스페인의 거지들

연재 2회

“스페인의 골목에서 1달러씩 달
라고 하는 거지를 100명 만났
다면 어떻게 할래? 네가 싫다고
하면 너와 거래할 생산물도 없
는 주제에 네가 가진 것에 격노
하며 질투와 절망에 사로잡혀
널 쓰러뜨리고 두들겨팼 거지
들에게 돌려싸인다면?”

낸시 크레스

옮김 정소연 에디터 홍지은

Beggars in Spain by Nancy Kress
Copyright © 1991 by Nancy Kress
Published by agreement with Ralph M.
Vicinanza, Ltd. through Shinwon Agency Co.
Original text: Nancy Kress (Beggars in Spain),
(Asimov's Science Fiction) 1991

Translated by Jeong soyeon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왜 지금까지 비밀로 하셨나요?”

“난 네게 비밀로 한 적 없다.”

캠든이 대답했다.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건 아니지. 네가 먼저 물어보면 되지 않느냐? 지금 내게 묻듯이 말이다.”

레이샤는 캠든을 쳐다보았다. 열다섯 살인 레이샤는 설리 학교의 졸업반이었다.

“왜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나요?”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빠는 다른 것은 모두 다 주셨잖아요.”

“원하는 것을 요청할 자유도 주었지.”

레이샤는 모순점을 찾아냈다.

“아빠는 제 교육에 필요한 것이라면 달라고 하기 전에 챙겨주셨어요. 제가 어려서 무엇을 달라고 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빠는 다른 불면인 괴물들을 만날 기회는 한번도 주지 않으셨...”

“그 말은 쓰지 말거라.”

캠든이 날카롭게 말을 잘랐다.

“그러니 그들을 만나는 일이 제 교육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셨거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 제가 그들을 만나지 않기를 바라셨겠죠.”

“틀렸다. 다른 경우도 있어. 그들을 만나는 일이 네 교육에 꼭 필요하고, 나 역시 네가 그들을 만나길 바라지만, 이번 일은 네 쪽에서 먼저 물기를 기다림으로써 널 적극적인 아이로 키우려고 했을 수도 있지.”

“알았어요.”

레이샤가 조금 대들듯이 대답했다. 최근 그들 부녀 사이에서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반항적인 분위기가 자주 흘렀다. 레이샤는 어깨를 폈다. 봉긋해지기 시작한 가슴이 앞으로 드러났다.

“그럼 여쭙볼게요. 세상에는 불면인이 몇 명이나 있고, 그들은 누구이며 어디에 있나요?”

“불면인이라고 하는 걸 보니 나름대로 조사를 했구나. 아마 이미 알고 있었지. 미국에는 1082명이 있고 외국에는 더 많지. 주로 대도시에서 살아. 79퍼센트는 시카고에 거주하고 대부분은 아직 어린아이들이다. 전 세계에서 단 19명만 너보다 나이가 많아.”

레이샤는 알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캠든이 의자에서 몸을 내밀어 그녀를 자세히 뜯어보았다. 레이샤는 아버지의 시력이 나빠진 게 아난가 싶었다. 마른 나뭇가지처럼 등성한 머리로 완전히 세웠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그를 미국의 100대 부자 명단에 올렸고, 《일간 여성 의류》는 미국의 억만장자 가운데 국제적인 파티, 자선

비로잡습니다
캔조 요가이, 요가이즘, 요가이스트를
캔조 야가이, 야가이즘, 야가이스트로
정정합니다.
특히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행사, 비밀이 탄발하는 사교계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그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용 제트기를 타고 다니며 전 세계의 비즈니스 회의에 참석하고 아가이 경제연구소장직을 수행할 뿐 다른 일에는 일체 나서지 않았다. 해가 갈수록 아버지는 더 부유해졌고, 은둔했으며, 더 사색적이 되었다. 아버지
 지에 대한 애정이 새삼 샘솟았다.

레이샤는 길고 날씬한 다리를 높이 흔들며 가족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앉았다. 그녀가 모기에 물린 허벅지를 무심히 긁으며 말했다.

“아, 그럼 리처드 켈러를 만나고 싶어요.”

리처드는 시카고에 살았고, 열일곱 살로 레이샤와 가장 비슷한 또래인데다 베타 테스트 불면인이었다.

“왜 내게 물어보냐? 그냥 가지 않겠어?”

캠든이 조급해 하듯 물었다. 그는 레이샤가 먼저 탐험해보고 나중에 보고하는 편을 좋아했다. 두 단계 모두 중요한 일이었다.

레이샤가 웃음을 터뜨렸다.

“아빠, 그거 아세요? 아뵘 예측 가능한 사람이에요.”

캠든도 웃었다. 한참 웃는 중에 수전이 들어왔다.

“그건 아니지. 로저, 목요일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회의는 어떻게 됐죠? 참석해요, 안
 해요?”

캠든이 대답하지 않자 수전이 새된 목소리로 다시 따졌다.

“로저, 묻고 있잖아요!”

레이샤는 눈을 피했다. 2년 전에 수전은 캠든의 저택과 일정을 관리하기 위해 결국 유전자 연구에서 손을 뗐다. 그 전까지는 둘 다 하려고 필사적이었다. 수전은 바이오테크를 그만둔 다음부터 변하기 시작했다. 우선 말투가 딱딱해졌다. 요리사나 정원사에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기 지시대로 따르라고 고집스레 요구했다. 땅고 다니던 금발은 단단하게 고정시킨 은발 웨이브로 바뀌었다.

“가.”

“알았어요. 최소한 대답이라도 해주니 다행이네요. 나는 가나요?”

“가고 싶으면.”

“가겠어요.”

수전이 방을 나갔다. 레이샤는 일어나 몸을 쪽 펴고 긴 다리를 들어 발끝으로 섰다. 정면의 넓은 창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을 향해 몸을 뻗고 얼굴 가득 별을 찍니 기분이 좋았다. 그녀는 아버지를 향해 미소지었다. 아버지는 뜻밖의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다.

“레이샤...”

“네?”

“켈러를 만나렴. 하지만 조심해.”

“필요?”

캠든은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무뎠다.

“레이샤 캠든이요? 네, 누구신지 압니다. 목요일 3시요?”

30년 된 식민지풍 주택은 수수했다. 창밖으로 자전거를 타고 노는 어린아이들이 보이는 조용한 교외 주택이었다. 지붕에 Y에너지판을 하나 이상 단 집이 별로 없었다. 크고 오래된 사랑단풍나무 가로수가 아름다웠다.

“들어오세요.”

리처드 켈러가 말했다. 레이샤 정도의 키에 통통하고 얼굴은 여드름투성이었다. 아마 수면 외에는 유전자 조작을 받지 않은 모양이었다. 굵고 짙은 머리칼, 낮은 이마, 두툼한 검은 눈썹. 레이샤는 그가 현관문을 닫기 전에 집 앞의 녹슨 10단 자전거 옆에 세워놓은 레이샤의 차와 운전기사를 발견하고 눈을 크게 뜨는 모습을 보았다.

“전 아직 운전을 못 해요. 열다섯 살이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왜 왔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레이샤는 단도직입적인 그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불면인들을 만나고 싶어서요.”

“한번도 만나본 적이 없단 말입니까? 우리 중 누구와도?”

“여러분은 서로를 알고 지내신단 말이에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다.

“제 방으로 가죠.”

그녀는 그를 따라 집 뒤쪽으로 갔다. 집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넓고 바람이 잘 통하는 밝은 곳으로, 컴퓨터와 서류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실내 조정 기구가 놓여 있었다. 설리 학교의 똑똑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의 구버전 같았다. 그래도 침대가 없으니 공간은 더 넉넉했다. 레이샤는 컴퓨터 스크린으로 다가갔다.

“아, Boesc 공식을 공부하는 중이세요?”

“공식의 응용에 관해서요.”

“어디에 응용하려고요?”

“어류 이동 패턴에요.”

레이샤가 미소를 띠었다.

“아, 그거 가능하겠네요. 생각도 못 해봤어요.”

리처드는 레이샤가 웃자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았다. 벽을 쳐다보다 그녀의 턱으로 시선을 옮겼다.

“환경 쪽의 가이아 패턴에는 관심 있나요?”

“음, 아뇨.”

레이샤가 솔직히 대답했다.

“별로 없어요. 전 하버드에서 정치학을 공부할 생각이예요. 로스쿨 지망이거든요. 그래도 학교에서 가이아 패턴은 배웠어요.”

리처드가 마침내 레이샤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었다. 그는 손으로 머리칼을 빗어넘겼다.

“앉으세요. 괜찮다면.”

레이샤는 앉아서 해류의 변화처럼 파란 바탕에 녹색으로 움직이는 벽의 포스터들을 감상했다.

“멋져요. 직접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내 예상과 전혀 다르네요.”

리처드가 말했다.

“어떻게 예상하셨는데요?” 그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거만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일 줄 알았습니다. 머리는 좋아도 알팍한 사람일 거라고요.”

레이샤는 생각보다 더 상처받았다.

리처드가 말을 쏟아냈다.

“당신은 진짜 부자인 단 두 명의 불면인 중 한 명이잖아요. 당신과 제니퍼 샬리피 둘이 그렇죠. 벌써 알고 있겠지만 말입니다.”

“아뇨, 몰랐어요. 한번도 확인해본 적이 없어요.”

리처드는 레이샤 옆에 놓인 의자에 앉아 통통한 다리를 앞으로 뻗었다. 근육을 풀어주는 데는 전혀 효과가 없을 듯한 구부정한 몸놀림이었다.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부자들은 자기 아이들을 우월하게 만들기 위해 유전자 조작을 하진 않죠. 그들의 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가진 돈만 갖고도 이미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유전자 조작을 할 돈이 없어요. 우리 불면인들은 딱 중상류층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교수, 과학자, 지성과 시간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부류의 아이들이죠.”

“우리 아버지도 지성과 시간을 높이 평가하시는 분이예요. 켄조 야가이의 열렬한 지지자라고요.”

“이봐요, 레이샤, 그걸 내가 모를 것 같아요? 날 놀리는 겁니까?”

레이샤는 고의적으로 대꾸했다.

“당신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가 받은 마음의 상처가 얼굴에 드러나고 말았다.

“미안합니다.”

리처드는 웅얼거려듯 사과하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컴퓨터 쪽으로 왔다 갔다 했다.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전... 전 당신이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어요.”

“외로웠어요.”

레이샤가 본인도 놀라며 말했다. 그녀는 리처드를 쳐다보았다.

“사실이에요. 전 외로워요. 네, 그래요. 친구들과 아빠와 앨리스가 있지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무엇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리처드가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인상을 완전히 바꾸었다. 어두운 얼굴에 빛을 비추는 듯한 웃음이었다.

“알아요. 그럼요, 알고말고요. 그들이 ‘어젯밤에 이런 꿈을 꾸었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맞아요! 그건 아주 사소한 일이죠. 제가 ‘오늘밤에 내가 대신 찾아볼게’라고 말할 때의 ‘내가 지는 사이에 찾아보겠지’라는 표정은 또 어땠고요!”

“그조차도 정말 사소한 일이죠. 저녁 식사 후에 체육관에서 농구를 하고 카페에 가서 간식을 먹은 다음에 ‘호숫가로 산책 나가자’라고 하면, 그들은 ‘난 정말 피곤해. 이제 집에 가서 잘래’라고 해요.”

“그 정도도 정말 사소한 일이죠.”

레이샤가 뛰어올랐다.

“한창 몰입해서 보던 영화에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 나와서 벌떡 일어나 ‘와! 와!’라고 외쳤더니, 수전이 ‘레이샤, 세상에 너만큼 뭘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처럼 구는구나’라고 지적할 때는 또 어땠고요.”

“수전이 누군데요?”

리처드가 물었다. 분위기가 깨졌지만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레이샤는 수전이 되기로 약속했던 존재와 되어간 존재 사이의 간극에 크게 불편해 하지 않으며 “새어머니예요”라고 대답할 수 있었다. 그녀를 이해하는 리처드가 즐거운 미소를 띠고 코앞에 서 있었다. 레이샤는 갑자기 강렬한 안도감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그에게 곧장 다가가 그의 목에 팔을 두르고, 그가 놀라 몸을 빼려고 하자 팔에 힘을 주었다. 레이샤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한번도 온 적 없는 레이샤가 말이다.

“이봐, 이봐.”

“굉장해.”

레이샤가 웃음을 터뜨렸다.

“굉장한 코멘트네.”

리처드가 부끄러운 듯 웃음 짓는 것이 느껴졌다.

“대신에 내 조류 이주 곡선을 볼래?”

“됐어.”

레이샤는 흐느꼈다. 리처드는 레이샤를 끌어안고 어색하게 등을 토닥이며 그녀가 고향에 왔음을 말없이 전했다.

자정이 지났지만 캠든은 레이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줄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점푸른 담배 연기 사이로 그가 조용히 물었다.

“레이샤, 좋은 시간 보냈니?”

“네.”

“잘됐구나.”

그는 일어나 마지막 담배를 눌러끄고 천천히 뻗뻗하게 계단을 올라가(그는 이제 칠순이 다 되었다) 침대로 향했다.

그들은 1년 가까이 어디든 함께 다녔다. 수영, 춤, 미술관, 극장, 도서관. 리처드는 다른 사람들에게 레이샤를 소개했다. 열네 살에서 열아홉 살 사이의 10대 12명으로, 모두 모두 똑똑하고 열성적이었다. 모두 불면인이었다.

레이샤는 그들을 알아나갔다.

토니 인디비노의 부모는 레이샤의 부모처럼 이혼했다. 그러나 열네 살인 토니는 잠 안 자는 아이를 그다지 원하지 않은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불면아를 원한 아버지는 빨간색 스포츠카와 파리에서 환경공학적인 의자를 디자인하는 젊은 애인과 살았다. 토니는 아무에게도, 친척에게도 학교 친구에게도 자기가 불면인이라는 사실을 밝힐 수 없었다. “넌 괴물로 볼 거야.”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에서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토니가 어머니의 말을 어기고 친구에게 잠을 자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는 토니를 때리고 다른 동네로 바로 이사해버렸다. 토니가 아홉 살 때였다.

레이샤만큼이나 다리가 길고 늘씬한 지아닌 카터는 올림픽에서 아이스 스케이팅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하루에 12시간씩 연습에 몰두했다. 수면인이라면 고등학생으로서는 불가능할 일이었다. 아직 기자들은 그녀에 관해 알아내지 못했다. 지아닌은 자신이 불면인이라는 게 밝혀지면 출전 금지를 당할까 봐 걱정하고 있었다.

잭 벨링햄은 레이샤처럼 올 가을 학기부터 대학에 입학할 예정이었다. 레이샤와 달리 그는 이미 자기 사업을 시작했다. 법률가가 되려면 로스쿨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투자는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었다. 적은 돈은 별로 없었지만 정확한 금융 분석으로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로 번 600달러를 주식에 투자해 3000달러로, 다시 1만 달러로 불려나갔다. 그는 이제는 정보 펀드(information fund)에 투기할 만큼 돈을 모았다. 잭이 아직 열다섯 살이라 법적으로 투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거래는 불면인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케빈 베이커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 그

는 오스틴에 살았다. 잭이 레이샤에게 말했다.

“2분기 연속으로 수익률 84퍼센트를 넘겼더니 데이터 분석가들이 로강해 왔어. 그냥 흠뻑 살피는 정도였지만, 뭐 그게 그 사람들 일이지. 총액은 작았지만 그들이 신경 쓰는 것은 패턴이니까. 만약 그들이 굳이 데이터뱅크를 다각도로 확인해서 케빈이 불면자라는 사실을 알아낸다면 우리가 투자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할까?”

“지나친 생각이야.”

“그렇지 않아.”

지아닌이 말했다.

“레이샤, 넌 몰라.”

“부유한 아버지가 신경 써서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레이샤가 말했다. 아무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다른 사람의 견해를 열린 마음으로 그늘진 암시 없이 받아들였다. 꿈 없이.

“그래, 네 아버지는 정말 멋진 분 같아. 게다가 그분은 성취가 속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널 키우셨지. 당연해. 그분은 야가리스트잖니. 뭐, 좋은 일이야. 널 위해서 잘된 일이지.”

지아니가 빈정거리는 기색 없이 말했다.

레이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세상이 꼭 그렇지만은 않아. 그들은 우리를 증오했어.”

“그건 좀 너무한다. 증오까지는 아니야.”

캐럴이 말했다.

“음, 그럴지도 모르지. 어쨌든 그들은 우리와 달라. 우리는 우월하고, 그들은 당연히 그 사실에 분개해.”

“뭐가 당연하다는 말인지 모르겠어.”

토니가 물었다.

“우월한 존재를 보고 감탄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 이유가 뭐야? 우린 그러잖아. 우리 중에 켈조 야가이, 물리학자 넬슨 웨이드 혹은 캐서린 라두스키의 천재성을 질투하는 사람 있어?”

“우리는 그들을 질투하지 않아. 우리가 더 나으니까. Q.E.D.⁽¹⁾”

리처드가 말했다.

“우린 우리들만의 사회를 가져야 해. 왜 그들의 규칙이 우리의 자연스럽고 정직한 성취를 제한하도록 내버려둬야 해? 왜 지아니가 그들과 스케이팅으로 경쟁해선 안 되고, 잭이 그들과 같은 조건으로 투자해선 안 된다는 거야? 단지 불면인이라는 이유 때문예? 그들 중에도 남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어. 더 끈기 있는 사람도 있어. 마찬가지로 우리는 더 집중력이 강하고, 생화학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더 시간이 많아.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지 않았어.”

“토니, 공정해야지. 아직 우리는 아무것도 금지당하지 않았잖아.”

지아니가 지적했다.

“결국 그렇게 될 거야.”

“잠깐만.”

대화에 마음이 몹시 불편해진 레이샤가 끼어들었다.

“내 말은... 그래,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우월하긴 해. 하지만 토니, 넌 논리를 벗어나 인용하고 있어. 독립선언문은 모든 인간이 동등한 능력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글이 아니야. 권리와 권력에 관한 글이지. 모든 사람들은 법 아래에서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뜻이야. 우리는 분리된 사회를 구성하거나 이 사회의 규칙을 벗어

(1) quod erat demonstrandum, '이와 같이 증명되었어야 할'이라는 뜻. 증명 완료.

나서 마음대로 행동할 권리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게 아니잖아. 같은 계약 규칙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개인의 노력을 자유롭게 거래할 방법도 없어져.”

“진정한 야가이스트다운 말이네.”

리처드가 레이샤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어려운 얘기는 그만하면 됐어.”

캐럴이 웃으며 말했다.

“몇 시간이나 토론했잖아. 세상에, 우린 지금 바닷가에 와 있다고. 나랑 같이 수영할 사람?”

“나!”

지아니가 외쳤다.

“잭, 어서 가자.”

모두들 일어나 수영복의 먼지를 털고 선글라스를 벗었다. 리처드가 레이샤를 당겨 일으켰다. 그러나 막 바다로 뛰어들려는 찰나, 토니가 마른 손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레이샤, 하나만 더 묻자. 그냥 생각해볼 거리로 말이야. 만약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그 성과를 상호 이익인 상황에서 강자와 약자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며 수면인들과 거래한다고 해. 그렇다면 너무 약해서 우리와 교환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의무를 갖는 걸까? 우리는 어쨌든 받은 것 이상을 그들에게 줄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때까지 뭘 줘야 할까? 우리의 생산물로 그들의 기형, 장애, 질병, 나태, 무능력까지 보살펴야 해?”

“수면인들에게 그래야 할까?”

레이샤가 받아쳤다.

“켄조 야가이는 아니라고 하겠지. 그는 수면인이야.”

“그는 그들도 계약을 통한 거래에서 이익을 얻는다고 할 거야. 비록 그런 사람들이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도 말이야. 전 세계는 Y에너지 덕분에 더 풍요롭고 건강해졌어.”

“이리 와!”

지아니가 소리쳤다.

“레이샤, 애들이 날 밀어넣고 있어! 잭, 그만하라니까! 레이샤, 도와줘!”

레이샤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지아니를 움켜잡기 직전에 리처드와 토니의 표정을 보았다. 리처드는 솔직하게 달아오른 표정이었고, 토니는 화난 표정이었다. 레이샤에게. 그렇지만 왜? 레이샤는 그저 존엄성과 거래를 옹호했을 뿐인데?

그때 잭이 그녀에게 물을 뿌렸고, 캐럴이 잭에게 물을 튀겼다. 리처드가 레이샤를 두 팔로 감싸안고 웃었다.

눈에 들어간 물을 닦아내고 보니 토니는 가고 없었다.

한밤중이었다.

“자, 누가 먼저 할래?”

캐럴이 물었다. 10대 여섯 명은 서로 눈치를 보며 가시덤불 공터에 앉아 있었다. 환경을 고려해 어둡게 밝힌 Y에너지 램프가 그들의 얼굴과 맨다리에 괴이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공터 주위로는 로저 캄든 소유의 숲이 그들과 캄든 소유지의 다른 건물들 사이를 어둡고 단단한 벽처럼 가로막고 있었다. 몹시 더웠다. 8월의 대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들은 냉방이 되는 Y필드를 가져오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모임은 자연으로, 위협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자연 상태로 지내자는 것이었다.

여섯 쌍의 눈동자가 캐럴의 손에 들린 유리잔으로 쏠렸다.

“이봐, 누가 마셔볼래?”

캐럴의 목소리는 의기양양하고, 연극 대사를 읊듯이 분명했다.

“구하는 것만도 어려웠어.”

“어떻게 구했는데?”

멤버들 중 (토니를 제외하면) 가장 영향력 없고 집안 형편도 넉넉지 않은 리처드가 물었다.

“액체 상태로?”

“제니퍼가 구했어.”

캐럴이 대답하자, 다섯 쌍의 눈동자가 제니퍼 샤리피에게로 옮겨갔다. 지난 2주 동안 제니퍼는 캐럴의 가족과 함께 지냈는데, 다들 그 이유를 몰라 의아해 하고 있었다. 미국에서 태어난 제니퍼는 할리우드의 영화배우와, 잠들지 않는 왕국을 건설하고 싶어 한 아랍 왕자의 딸이었다. 영화배우는 약물 중독이었다. 켄조 야가이가 아직 첫 번째 특허를 심사받고 있을 때 석유에 넣었던 재산을 빼내 Y에너지에 투자한 왕자는 이제 죽고 없었다. 제니퍼 샤리피는 레이샤가 언젠가 될 수준보다도 훨씬 더 부유했다. 뭘 구해 오는 능력으로는 따를 자가 없었다. 유리잔에는 면역 체계 강화제인 인터루킨-1이 담겨 있었다. 뇌가 신속하고 깊은 수면에 빠져드는 부작용이 있는 물질이었다.

레이샤는 유리잔을 응시했다. 복부에서 리처드와 사랑을 나눌 때처럼 따뜻한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레이샤는 제니퍼가 자신을 관찰하고 있음을 깨닫고 얼굴을 붉혔다.

제니퍼는 레이샤를 불편하게 했다. 그녀가 토니, 리처드, 잭을 불편하게 하는 당연한 이유, 즉 그녀의 길고 검은 머리, 늘씬한 몸매, 짧은 바지와 홀터넥 때문은 아니었다. 제니퍼는 웃지 않았다. 레이샤는 제니퍼처럼 웃음이 없고, 말수가 적고, 태연한 척 꾸민 어조로 말하는 사람을 한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레이샤는 제니퍼 샤리피가 말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곤 했는데, 다른 불면인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기분이 이상했다.

토니가 캐럴에게 말했다.

“나한테 줘!”

캐럴이 그에게 잔을 건넸다.

“알겠지, 조금만 마시면 돼.” 토니가 유리잔을 입가에 댔다가 손을 멈추고 잔가두리 너머로 강렬한 눈을 빛내며 그들을 보았다. 그리고 마셨다.

캐럴이 잔을 도로 받았다. 그들은 모두 토니를 지켜보았다. 채 1분이 지나지 않아 그는 거친 맨땅에 누웠다. 2분이 지나기 전에 그는 눈을 감고 잠이 들었다.

부모나 형제자매, 친구들이 자는 모습을 볼 때와 전혀 달랐다. 잠든 사람은 토니였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피하며 시선을 돌렸다. 레이샤는 다리 사이로 아릿하게 당겨오는, 희미하게 야한 열기를 의식했다. 그녀는 제니퍼 쪽을 보지 않았다.

레이샤는 차례가 되자 천천히 내용물을 들이키고 잔을 리처드에게 넘겼다. 마치 젖은 수건으로 눌린 듯 머리가 무거웠다. 공터의 나무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휴대용 램프로 흐릿해졌다. 램프의 불빛은 더 이상 깨끗하고 밝지 않았다. 얼룩진 듯 질퍽했고, 손을 대면 묻어날 것 같았다. 그리고 어둠이 뇌를 급습해 빼앗아갔다. 그녀의 마음을 빼앗아갔다. “아빠!” 레이샤는 소리치려 했지만, 아버지를 향해 손을 뻗으려 했지만, 어둠이 그녀를 지웠다.

나중에는 모두들 두통에 시달렸다. 희미한 아침햇살을 받으며 숲에서 나오는 일은 야릇한 수치심이 더해진 고문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레이샤는 가능한 한 리처드와 떨어져서 걸었다.

입을 연 사람은 제니퍼뿐이었다.

“이제 우린 알아.”

그녀가 묘한 만족감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왼쪽 머리를 들쐫시는 고통과 뱃속의 욕지기가 잦아드는 데는 꼬박 하루가 걸렸다. 그녀는 방에 혼자 앉아 통증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열기에도 불구하고 온몸이 떨렸다.

꿈조차도 없었다.

“오늘밤에 나랑 같이 가자.”

레이샤가 열 번도 넘게 말했다.

“우리 둘 다 모레면 대학으로 가잖아.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너한테 리처드를 꼭 소개해주고 싶어.”

앨리스는 침대에 엎드려 있었다. 푸석한 갈색 머리칼이 얼굴을 가렸다. 앨리스는 고급스런 노란색 실내복을 입었다. 앤 패터슨이 디자인한 비단은 그녀의 무릎께에 구겨져 있었다.

“왜? 내가 리처드를 만나든 말든 언니가 무슨 상관이야?”

“넌 내 동생이잖아.”

레이샤가 말했다. 그녀는 ‘내 쌍둥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말만큼 앨리스를 화나게 하는 것도 없었다.

“만나기 싫어.”

앨리스의 표정이 바뀌었다.

“아, 언니, 미안해. 그렇게 딱딱거릴 생각은 아니었어. 하지만... 하지만 만나고 싶지 않아.”

“그들을 전부 만나라는 게 아니야. 리처드면 돼. 그냥 한두 시간이면 족하다고. 그리고 나서 여기로 돌아와서 노스웨스턴에 가져갈 짐을 싸면 될 거야.”

“나는 노스웨스턴에 안 가.”

레이샤가 앨리스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나 임신했어.”

레이샤는 침대에 앉았다. 앨리스가 몸을 굴러 바로 눕더니 눈가를 덮은 머리칼을 걷어내고 웃음을 터뜨렸다. 레이샤는 그 소리에 귀를 막았다.

“언니 표정 좀 봐. 언니가 임신한 줄 알겠다. 하지만 언니는 그러지 않겠지? 적당한 때가 될 때까지 말이야. 언니라면 안 그러겠지.”

“어떻게? 우리 둘 다 캡을...”

“난 빼냈어.”

“임신하고 싶었던 말이야?”

“지랄맞게도 그랬어. 아편 날 막을 수 없을 거야. 물론 금전적인 지원을 모두 끊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하진 않겠지?”

앨리스가 다시 웃었다.

“아무리 나한테라도?”

“하지만 앨리스... 왜? 아빠를 화나게 하려는 건 아니겠지?”

“아냐. 생각할 법한 이유지만 말이야. 난 뭔가 사랑할 대상을 갖고 싶었어. 나만의 것을 갖고 싶었어. 이 집과 아무 상관 없는 것을 갖고 싶었어.”

레이샤는 오래전 온실에서 햇살을 받으며 함께 뛰어다니던 앨리스와 자신을 떠올렸다.

“이 집에서 자라온 날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잖아.”

“언니, 언니는 바보야. 언니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쩔 이렇게 멍청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내 방에서 나가! 나가!”

“하지만 앨리스, 아가라니...”

“나가!”

앨리스가 비명을 질렀다.

“하버드로 가! 가서 성공해! 당장 나가!”

레이샤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기꺼이! 앨리스, 넌 비이성적이야. 앞날도 생각하지 않고, 계획도 세우지 않잖아. 아가라니...”

하지만 레이샤는 결코 오래 화내지 못했다. 분노가 흘러나가며 그

녀의 마음을 텅 비웠다. 그녀는 앨리스를 바라보았다. 앨리스가 갑자기 두 팔을 벌렸다. 레이샤는 앨리스의 품에 몸을 맡겼다.

“언니가 아기였어.”

앨리스가 놀라워하며 말했다.

“언니가 아기구나. 언니는 정말... 뭐라고 해야 할지. 언니는 아기야.”

레이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앨리스의 팔은 따뜻하고, 완전하고, 햇볕 아래에서 뛰노는 두 아이처럼 느껴졌다.

“앨리스, 내가 도와줄게. 아빠가 안 돕는다면 내가 할게.”

앨리스가 그녀를 볼썽 밀어냈다.

“언니 도움은 필요 없어.”

앨리스가 일어섰다. 레이샤는 텅 빈 팔을 문질렀다. 팔꿈치가 손톱에 긁혔다. 앨리스가 노스웨스턴에 가져가려던 텅 빈 여행가방을 건어차더니, 레이샤가 고개를 돌리고 싶어지게 하는 미소를 띠었다. 레이샤는 더 심한 말을 들을 준비를 했다. 그러나 앨리스는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하버드에서 즐겁게 지내.”

5

마음에 쏙 들었다.

미합중국보다 반세기 더 유서 깊은 매사추세츠 홀을 처음 본 순간, 레이샤는 시카고에는 없는 무언가를 느꼈다. 시간, 뿌리, 전통. 와이드너 도서관의 벽돌, 피보디 박물관의 진열장을 성배를 만지듯 쓰다듬었다. 레이샤는 전설이나 희곡에 그다지 감동하지 않는 편이었다. 줄리엣의 고통은 인공적이고 윌리 로먼⁽²⁾의 괴로움은 낭비일 뿐이라고 느꼈다. 더 나은 사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 발버둥치는 아서 왕의 이야기 정도에나 흥미가 갔다. 그러나 옥중한 가을 나무들 아래를 걸으며 세대를 넘는 힘, 남긴 이들은 결코 보지 못할 배움과 성취를 위해 남겨진 유산, 다가올 수세기를 만들어갈 개인들의 노력을 순간적으로 느꼈다. 레이샤는

멈춰서서 나뭇잎 사이로 보이는 하늘과 목표물을 갖고 굳건히 선 건물들을 쳐다보았다. 자신이 원하는 딸을 만들어내기 위해 유전자 연구소 전체의 의지를 꺾었던 아버지를 생각했다.

하지만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레이샤는 이런 거창한 사색에 관해 까맣게 잊어버렸다.

해야 할 공부가 너무 많았다. 레이샤에게도 그랬다. 설리 학교에서는 학생이 자기 나름의 속도에 맞추어 개인적으로 탐구해나가는 것을 권장했다. 하버드는 학생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알았고, 자기들 속도로 나갔다. 총장은 어린 시절 일본의 경제 독주를 질린 눈

(2) 아서 밀러의 희곡 《세일즈맨의 죽음》의 주인공.

으로 바라보며 자란 사람이었다. 그의 지도 아래 하버드는 지난 20년 사이에 사실, 이론, 응용, 문제 해결 교육의 첨단이자 지적 효율로의 귀환을 둘러싼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지원자들의 경쟁률이 200 대 1이었다. 영국 총리의 딸도 입학한 지 1년 만에 낙제해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레이샤는 기숙사 신관의 1인실에 들어갔다. 시카고에 고립되어 오랜 시간을 보낸 터라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기숙사에 들어갔고, 밤새 공부하느라 잠든 학생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1인실을 잡았다. 입실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웬 남학생이 복도를 어슬렁거리더니 레이샤의 방에 들어와 책상 구석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았다.

“레이샤 캄튼이군요?”

“네.”

“열여섯 살이죠.”

“곧 열일곱이 돼요.”

“노력도 하지 않고 우리 모두를 능가할 분이시라죠.”

레이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남학생이 부드러운 눈썹을 찌푸리고 그녀를 응시했다.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레이샤는 리처드, 토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 경멸의 말을 쓴 분노를 읽는 법을 배운 터였다.

“네, 그럴 거예요.”

레이샤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확실해요? 예쁜 요조숙녀의 머릿결과 요조숙녀의 괴물 머리통으로?”

“이봐, 한나웨이, 시비 걸지 마.”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말라서 갈비뼈가 바닷가 모래사장에 남은 파도의 흔적처럼 드러나 보이는 키가 큰 금발 남학생이었다. 맨발에 청바지만 입고 젖은 머리를 말리고 있었다.

“명청한 티 내며 돌아다니기 지겹지도 않냐?”

“너는?”

한나웨이가 대꾸했다. 책상에서 내려와 문 쪽으로 발을 뗐다. 금발 남학생이 옆으로 비켜섰다. 레이샤가 한나웨이를 가로막았다.

“제가 당신보다 더 뛰어난 것은 당신에게는 없는 이점을 몇 가지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잠을 자지 않게 타고난 점을 포함해서요. 당신보다 좋은 성적을 받고 나서 시험 공부를 기꺼이 도와드리겠어요.”

귀의 물기를 털어내던 금발머리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한나웨이는 몸을 딱딱하게 굳혔다. 그의 눈빛에 레이샤가 주춤 물러섰다. 그는 레이샤를 확 밀치고 씩씩대며 나갔다.

“캄튼, 잘했어요. 그 정도 당해도 썩 녀석이지요.”

금발 남학생이 말했다.

“전 진심이었는데요. 공부를 도와줄 생각이예요.”

금발머리가 수건을 든 손을 내리고 그녀를 뻔히 응시했다.

“정말이었군요. 진짜로 도와줄 생각이었군요.”

“네! 왜 다들 진심이나고 자꾸 물어보죠?”

“음, 저는 안 물어봅니다. 제가 뒤처지면 도와주세요.”

그가 씩 웃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요.”

“왜요?”

“왜냐하면 저도 당신만큼이나 뭐든지 잘하니까요, 레이샤 캠프 양.”

레이샤는 그를 살폈다.

“당신은 우리가 아니군요. 불편인이 아니에요.”

“잠을 자지 않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저는 제가 무엇을 할 줄 아는지 알아요. 행하라, 되어라, 창조하라, 교환하라.”

“야가이스트군요!”

“물론이죠.”

그가 손을 내밀었다.

“스튜어트 서터라고 해요. 매점에서 피시버거 어때요?”

“좋고말고요.”

레이샤가 대답했다. 둘은 열정적으로 대화하며 함께 걸어갔다. 레이샤는 사람들이 쳐다봐도 무시하려고 애썼다. 그녀는 여기, 하버드에 있었다. 그녀 앞에는 배움을 위한 시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를 받아들이고 자극하는 스튜어트 서터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가 깨어 있는 시간에는.

레이샤는 학교 공부에 푹 빠져들었다. 로저 캠프는 학교에 찾아와 레이샤와 함께 교정을 산책하며 미소 띤 얼굴로 딸의 이야기를 들었다. 레이샤의 예상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캠프는 스튜어트 서터의 아버지와 케이트 애덤스의 할아버지와 아는 사이였다. 부녀는 하버드, 사업, 하버드, 야가이 경제연구소, 하버드에 관해 이야기했다.

“앨리스는 어떻게 지내요?”

레이샤의 질문에 캠프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가출했고, 아버지를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단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앨리스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다. 캠프는 침착해 보였다.

레이샤는 동창회 파티에 스튜어트와 함께 갔다. 스튜어트도 법학 부 지망으로 레이샤보다 두 학년 위였다. 또한 케이트 애덤스, 여자

친구 둘하고 콩코드Ⅲ를 타고 파리로 주말 여행을 갔다. 스튜어트와 초전도성 메타포가 야가이즘에도 적용되는지를 놓고 열띤 토론도 벌였다. 둘 다 명칭한 토론인 줄 알면서도 했고, 토론 끝에 둘은 연인이 되었다. 리처드와의 서투른 탐색에 비해 스튜어트는 경험이 많고 숨씨가 좋았다. 그는 열은 미소를 띠고 레이샤에게 스스로 오르가슴에 이르는 방법과, 그와 함께 절정으로 치닫는 법을 가르쳐주었다. 레이샤는 압도되었다.

“정말 즐거워!”

레이샤가 말하자 스튜어트는 부드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레이샤는 그의 시선 한구석에 깃든 불편함을 느꼈지만 이유는 알지 못했다.

중간고사에서 레이샤는 신입생 중 가장 높은 학점을 받았다. 전 과목 만점이었다. 레이샤는 스튜어트와 나가서 축하주를 마셨다. 돌아와보니 방이 난장판이었다. 컴퓨터는 망가졌고 데이터 뱅크는 완전히 지워졌으며 책은 철제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었다. 옷은 갈가리 찢겼고 책상과 옷장도 부서졌다. 오직 침대만이 손댄 흔적 없이 깨끗했다.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 리가 없어. 같은 층에 있는 학생들은... 쟁쟁, 아래 층 사람들도 알았을 거야. 누군가 경찰에게 말해주겠지.”

아무도 경찰에 진술하지 않았다. 레이샤는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아 동창회 파티 때 입을 드레스 조각을 벗어 나간 얼굴로 바라보았다. 다음 날 데이브 한나웨이가 그녀를 보며 씩 웃었다.

격노한 캠프이 동부로 날아왔다. 그는 케임브리지에 포-잠금 장치와 설치된 아파트를 빌리고 토시오라는 경호원을 고용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자 레이샤는 경호원을 해고하고 아파트만 가졌다. 아파트 덕분에 생긴 들만의 시간에 그들은 레이샤가 처한 상황에 관해 끝없이 토론했다. 탈선이자 미성숙일 뿐이라고 주장한 쪽은 레이샤였다.

“스튜어트, 증오는 언제나 존재했어. 유대인, 흑인, 이민자, 더 독창적이고 존엄한 야가이스트를 향한 증오는 늘 있었지. 난 단지 새로운 증오의 대상일 뿐이야. 새로운 일도 특별한 일도 아니야. 불면인과 수면인 사이의 근본적인 분열이라고 볼 수는 없어.”

스튜어트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사이드 테이블에 놓인 샌드위치로 손을 뻗었다.

“과연 그럴까? 레이샤, 넌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야. 진화에 있어서 단지 생존뿐 아니라 번성에 더 적합한 인류지. 네가 말한 증오의 대상들은 사회적 약자였어. 열등한 지위에 있었지. 넌 달라. 하버드 법대의 불면인 세 명은 모두 《로 리뷰(Law Review)》에 실렸어. 셋 다 말이야. 최연장자인 케빈 베이커는 벌써 바이오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회사를 성공적으로 설립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인다구. 불면인들은 성적도 좋고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고 건강해. 게다가 대부분이 아직 미성년자지. 너희가 재계와 금융계의 큰손으로 성장하고, 몇 안 되는 교수직이나 정계의 요직을 차지하고 나면 얼마나 엄청난 증오에 직면할지 생각해봤어?”

“나도 샌드위치 먹을래.”

레이샤가 말했다.

“네가 틀렸다는 증거를 대볼게. 바로 너 자신이야. 그리고 캔조 야가이, 케이트 애덤스, 레인 교수님, 우리 아버지처럼 공정 거래와 상호 이익인 계약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모든 수면인들이 곧 중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소한 고려해볼 만한 사람들 대부분은 그와 같다고 생각해. 너는 최적임자들 간의 경쟁이 강자에게든 약자에게든 가장 큰 이익을 주는 거래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지. 불면인들은 이 사회의 여러 분야에 확실히고도 현실적으로 기여하고 있어. 우리는 너희에게가 치가 있어. 너도 알잖아.”

스튜어트가 구겨진 시트를 손으로 폈다.

“그래, 난 알아. 야가이스트들은 알고 있어.”

“재계, 금융계, 학계를 이끌어나가는 사람들은 야가이스트야. 그렇게 될 거야. 능력주의 사회라면 그렇게 되어야 해. 넌 대중을 과소평가하고 있어. 선두에 선 사람들만 윤리적인 것은 아니야.”

“네 말이 맞았으면 좋겠어.”

스튜어트가 말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난 널 사랑하니까.”

레이샤가 샌드위치를 내려놓았다.

“즐거움.”

스튜어트가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웅얼거렸다.

“넌 즐거움이야.”

레이샤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집에 돌아가서 리처드에게 스텐포드 이야기를 했다. 리처드는 입을 굳게 다물고 끝까지 들었다.

“수면인이군.”

“사람이야. 똑똑하고 유능하고 좋은 사람이야!”

“네 똑똑하고 유능하고 좋은 수면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지아닌은 올림픽 스케이트 출전을 금지 당했어. ‘스포츠맨십에 반하는 이득을 얻기 위한 스테로이드 사용과 유사한 유전자 조작이

라고 했지. 크리스 레브로는 스텐포드를 떠났어. 수면인들이 연구실을 습격해 기억형성단백질에 관한 2년치 연구를 박살냈지. 케빈 베이커의 소프트웨어 회사는 수면 아래로 악질적인 네거티브 광고에 시달리고 있어. 비인간적인 정신 세계에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아 이들이 쓰게 해서는 안 된다는 식이야. 타락, 세뇌, 사탄의 힘… 마녀 사냥의 온갖 수법 그대로야. 레이샤, 꿈깨!”

레이샤와 리처드 둘 다 리처드가 방금 한 말을 들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다. 리처드는 상체를 앞으로 내밀고 이를 악문 채 복서처럼 서 있었다. 마침내 그가 아주 조용히 물었다.

“그를 사랑해?”

“응.”

레이샤가 대답했다.

“미안해.”

“네 마음이지.”

리처드가 차갑게 대꾸했다.

“그가 자는 동안엔 뭘 해? 쳐다봐?”

“날 성도착자 취급하듯이 말하지 마!”

리처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레이샤는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빠르고 차분하게 억누른 어조로 말했다.

“스튜어트가 자는 동안 나는 공부해. 너와 마찬가지로. 리처드, 이리저리. 널 상처 입히고 싶진 않아. 모임에서 떨어져나오고 싶지도 않아. 나는 수면인들이 우리와 같은 종(種)임을 믿어. 그렇게 믿는다는 이유로 나를 응징하고 싶은 거야? 너까지 증오에 동참하고 싶어? 잠을 자든 안 자든 정직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더 넓은 세계에 내가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경제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유전자가 가장 중요한 분류 기준이라고 말할 거야? 그들과 우리라는 인위적인 선택으로 나를 몰아넣고 싶어?”

리처드가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레이샤는 그 목걸이를 알아보았다. 여름에 리처드에게 준 선물이었다. 리처드가 차분하게 말했다.

“아니,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그는 손가락으로 한동안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다가 고개를 들어 레이샤를 마주 보았다.

“아직은.”

봄방학이 왔다. 캠프의 걸음걸이는 더 느려졌다. 혈압과 심장 문제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그는 레이샤에게 수전과 이혼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나와 결혼한 다음부터 변했어. 너도 보았지. 그 전에는 독립적이고 생산적이고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몇 년 지나자 그런 모습은 다 사라지고 잔소리만 남았지.

넋두리나 늘어놓는 잔소리꾼만 남았어.”

그가 진심으로 이해할 수 없어 하며 고개를 저었다.

“너도 그 변화를 보았지.”

레이샤도 보았다. 문득 레이샤, 앨리스와 사실은 통제된 대뇌 활동 검사였던 ‘놀이’를 하던 수전의 모습이 떠올랐다. 레이샤는 수전의 반짝이던 눈과 경쾌하게 흔들리던 뺨은 머리를 기억했다. 그때는 앨리스도 레이샤만큼이나 수전을 사랑했다.

“아빠, 앨리스의 주소를 알고 싶어요.”

“하버드에 갔을 때 말했듯이 나는 모른다.”

캠든이 의자에서 몸을 움직였다. 결코 수명을 다하지 않을 것 같았던 몸에 남아 있는 성급한 제스처였다. 1월에 캔조 아기가 췌장암으로 죽었다. 캠든은 그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

“변호사를 통해 돈을 보내고 있다. 앨리스가 바란 일이야.”

“그러면 변호사의 연락처를 알고 싶어요.”

변호사는 존 야보르스키라는 억눌린 인상의 남자였다. 그는 앨리스의 거취를 레이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

“캠든 씨, 그녀는 나타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인연을 끊고 싶어 해요.”

“저한테는 아닐 거예요.”

“아닙니다.”

야보르스키의 눈에서 무언가가 번득였다. 예전에 데이브 한나웨이에게서 보았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그녀는 개강일 수업을 빠지고 보스턴으로 가는 길에 오스틴에 들렀다. 케빈 베이커는 IBM과의 회의를 취소하고 즉시 그녀를 만났다. 레이샤가 필요한 정보를 이야기하자 케빈은 가장 유능한 데이터 담당자들에게 이유를 말하지 않은 채 지시를 내렸다. 덕분에 두 시간 만에 야보르스키의 전자 파일에서 빼낸 앨리스의 주소를 받을 수 있었다. 레이샤가 불면인에게 도움을 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그는 즉시 도와주었다. 거래 없이.

앨리스는 펜실베이니아에 살고 있었다. 레이샤는 다음 주말에 공중차를 빌리고 운전사를 고용했다. 운전은 배웠지만 아직 지상차밖에 몰 줄 몰랐다. 그리고 애플래치아 산맥의 고원으로 갔다.

가장 가까운 병원에서 40킬로미터나 떨어진 고립된 촌락이었다. 앨리스는 스무 살 연상의 과묵한 목수 에드와 숲 속 오두막에 살고 있었다. 수도와 전기는 들어왔지만, 뉴스넷은 없었다. 이른 봄빛을 받은 헐벗은 땅에는 얼음이 녹아 갈라진 흔적이 남아 있었다. 앨리스와 에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앨리스는 임신 8개월이었다.

“언니가 오길 바라지 않았어. 왜 왔어?”

“넌 내 동생이니까.”

“맘소사, 언니 좀 봐. 하버드에서는 그런 옷을 입나 보지? 그런 부츠를 신고? 언제부터 패션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어? 언제나 너무 똑똑하게 사느라 바빠서 신경도 안 썼잖아.”

“앨리스, 이게 다 뭐니? 왜 여기 있어? 뭘 하고 있니?”

“살고 있어. 친애하는 아버지로부터, 시카고로부터, 술에 취하고 망가진 수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수전도 알코올 중독인 거 알고 있었어? 꼭 엄마처럼 됐지. 아버지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지. 하지만 난 아냐. 난 벗어났어. 언니는 과연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 만 말아야.”

“벗어났다고? 여기로?”

“난 행복해.”

앨리스가 화를 냈다. “행복하려고 사는 거 아냐? 언니네 위대하신 켄조 야가이가 말한 목적이잖아? 개인의 노력을 통한 행복의 달성?”

레이샤는 앨리스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할까 생각했지만 입을 다물었다. 오두막 앞으로 닦 한 마리가 달렸다. 뒤로는 푸른 안개 위로 산맥이 층층이 솟아 있었다. 레이샤는 목표를 가지고 배우고 변화해나가는 사람들이 번성하는 세계로부터 단절된 이 공간이 겨울에는 어땠을까 생각했다.

“네가 행복하다니 기뻐.”

“언니는 행복해?”

“응.”

“그러면 나도 기뻐.”

앨리스가 대들듯이 대꾸하더니 대뜸 다가와 레이샤를 세계 끌어안았다. 단단하고 커다랗게 부푼 배가 자매 사이로 눌렸다. 앨리스의 머리칼에서는 햇볕을 받은 신선한 잔디처럼 달콤한 향기가 났다.

“또 만나러 올게”

“오지 마.”

6

‘불면 괴물이 유전자 역전을 애원하다!’

식료품점의 뉴스 헤드라인이 번쩍였다.

“절 진짜 사람답게 잠들게 해주세요! 아이의 애원!”

평소에는 전자 타블로이드를 무시하는 레이샤였지만, 신용
번호를 입력하고 뉴스를 인쇄했다. 헤드라인이 뉴스 가판대

를 돌아 흘러가고 있었다. 상자와 진열장을 정리하던 점원이 손을 멈추고 그녀를 보았다. 레이샤의
경호원이 점원을 응시했다.

스물두 살인 레이샤는 하버드 법대 졸업반으로, 《로 리뷰》의 편집장
이자 대학원 동기들 중 단연 1등이었다. 레이샤 뒤로는 조너선 코키아
라, 렌 카터, 마사 웬츠가 있었는데, 셋 다 불면인이었다.

레이샤는 집에 돌아와 출력한 기사를 훑어본 다음 오스틴에서 운영
하는 그룹넷에 접속했다. 아이에 대한 더 자세한 소식과 다른 불면인
들의 댓글이 올라와 있었다. 레이샤가 글을 읽으려는 순간 케빈 베이
커가 접속해 말을 걸었다.

“레이샤, 잘 왔어. 너한테 전화하려던 참이야.”

“스텔라 베빙턴은 어떤 상황이야? 누가 확인해봤어?”

“랜디 데이비스가 가봤어. 시카고에 사는데, 너랑 만난 적은 없을 거야. 아직 고등학생이거든. 스텔라는 스코키에 살고, 랜디는 파크 리지에 있어. 스텔라의 부모는 랜디를 쫓아내려고 했어. 까놓고 말해 꽤 심하게 굴었다나 봐. 그래도 어쨌든 스텔라와 직접 만나봤는데, 학대당하는 것 같지는 않았대. 그냥 흔히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야. 천재를 넣고 싶어 한푼 두푼 모았으면서 막상 딸이 진짜 천재니까 감당을 못 하는 거지. 스텔라에게 잠을 자라고 고함을 지르고, 딸이 거부하면 심한 말을 하지만 아직 폭력을 휘두른 적은 없어.”

“정서적인 학대는 기소 가능한 수준이야?”

“아직 그렇게까지 진행할 일은 아닌 것 같아. 우리 중 두 사람이 스텔라와 계속 연락하기로 했어. 스텔라도 접속은 할 수 있고, 부모에게는 그룹넷에 관해 아무 말도 안 했대. 그리고 매주 랜디가 직접 찾아갈 거야.”

레이샤는 입술을 깨물었다.

“타블로이드에는 스텔라가 일곱 살이라고 나와 있었어.”

“맞아.”

“거기 그냥 두면 안 될지도 몰라. 나도 일리노이 주민이니까, 랜디가 맡은 사건이 너무 많다면 내가 여기에서 아동 학대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어...”

일곱 살.

“아니, 일단은 두고 보자. 스텔라는 괜찮아질 거야. 너도 알잖아.”

그랬다. 불면인들은 어리석은 사회 일부가 얼마나 적대적으로 굴든 대체로 평온을 유지했다. 그리고 레이샤는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일부일 뿐이라고, 시끄러울지 몰라도 단지 소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레이샤는 불면인의 존재가 나라 전체에 힘이 될 뿐 아니라 이득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지면 다들 불면인의 증가에 적응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이제 스물여섯 살인 케빈 베이커는 혁명적인 마이크로 칩 연구로 막대한 돈을 벌었다. 그가 만든 칩 덕분에 한때는 비현실적인 공상에 불과했던 인공 지능 개발이 가까운 미래로 다가와 있었다. 캐롤린 리즐로는 스물네 살에 희곡 《아침햇살》로 풀리처상을 받았다. 제레미 로빈슨은 스탠포드 대학원 시절에 초전도 응용에 관한 획기적인 연구를 내놓았다. 레이샤가 하버드에 입학했을 당시 《로 리뷰》의

편집장이었던 윌리엄 테인은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었다. 스물여섯 살인 그에게 벌써 중요한 사건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고객들은 나이보다 능력을 중시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았다.

케빈 베이커와 리처드 켈러가 불면인들을 단단한 그룹으로 엮는 데 인터넷을 만들었다. 불면인들은 데이터넷을 통해 서로가 겪는 개인적인 투쟁 소식을 항상 알았다. 레이샤 캄든은 법적 분쟁에 자금을 댔고, 교육비가 부족한 불면아의 부모나 정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어린이들을 지원했다. 론다 라벨리어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위

탁모 자격증을 땀다. 어린 불면인을 구출할 경우 모임에서는 그 아이들을 론다에게 적법하게 위탁했다. 모임에는 변호사가 세 명 있었고, 내년이면 다섯 주에서 활동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네 명 더 늘어날 터였다.

학대당한 불면아를 적법하게 구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납치해 왔다.

티미 디마르초는 네 살이었다. 레이샤는 반대했다. 윤리적, 실용적—레이샤에겐 둘 다 같은 뜻이었다—이유를 댔다. 사회의 기본 질서를 믿고 규칙에 따라 자유롭게 거래하는 생산적인 개인이라면 불면인도 사회 계약인 법을 지켜야 했다. 불면인들은 대개 야가리스트였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알아 마땅했다. FBI에 잡히는 날에는 법원과 언론의 공격을 받을 터였다.

하지만 그들은 잡히지 않았다.

티미 디마르초가 데이터넷으로 도움을 청하지도 못할 만큼 어렸기 때문에 그들은 케빈이 회사를 통해 입수한 자동 경찰 기록으로 상황을 알았다. 티미는 위치타에 있는 자기 집 뒷마당에서 납치되었다. 티미는 지난 1년 동안 노스다코타의 고립된 트레일러에서 살았지만, 세상에 접속하지 못할 만큼 고립된 곳은 없었다. 평생 그곳에서 살아온,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양어머니가 티미를 돌보았다. 그녀는 불면인의 친척이었다. 뚱뚱하고 명랑한 야가리스트로 겉보기보다 훨씬 똑똑한 여자였다. 어떤 데이터뱅크에도 티미의 존재는 남지 않았다. IRS, 학교, 심지어 동네 식료품점의 자동화된 영수증에도 드러나지 않았다. 어린이만 먹는 음식은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 있는 불면인 소유의 트럭으로 달마다 날랐다. 미국에서 태어난 3428명의 불면인 중 납치 사건에 관해 아는 사람은 10명 뿐이었다. 3428명 중에 네트워크로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2691명이었다. 701명은 너무 어려서 모형을 사용하지 못했다. 단 36명의 불면인들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다.

납치를 주도한 사람은 토니 인디비노였다.

“토니에 관해 할 말이 있어.”

케빈이 레이샤에게 말했다.

“또 시작했어. 이번엔 진심이야. 땅을 사들이고 있어.”

레이샤는 신문을 아주 작게 접어 탁자에 조심스레 놓았다.

“어디에서?”

“뉴욕 주 남부의 엘러게니 대지에 상당히 넓은 땅을 사들였어. 이제 도로를 놓기 시작했고 봄부터는 건물이 들어서.”

“자금도 제니퍼 샤리피가 자금을 대고 있어?”

숲에서 인터루킨을 마신 지 여섯 해가 지났지만, 레이샤는 그날 밤의 일을, 그리고 제니퍼 샤리피를 또렷이 기억했다.

“응. 그만큼 돈이 있잖아. 토니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알아.”

“토니에게 연락해봐.”

“알았어. 스텔라 소식은 계속 알려줘.”

레이샤는 자정까지 《로 리뷰》작업을 한 다음, 새벽 4시까지 수업 준비를 했다. 4시에서 5시 사이에는 모임과 관련된 법률 문제를 처리했다. 5시에는 아직 시카고에 사는 토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토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노스웨스턴에서 한 학기를 마쳤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방학에, 수면인인 척하라고 강요했던 어머니에게 끝내 폭발하고 말았다. 레이샤가 보기에 그 폭발은 결코 끝나지 않은 것 같았다.

“토니? 레이샤야.”

“답은 다음과 같아. 그래, 그래, 아니, 지옥으로 꺼져.”

레이샤가 이를 갈았다.

“좋아, 그럼 이제 질문을 들려줘.”

“불면인들이 자급자족하는 사회를 만들어 들어가겠다는 게 진심이야? 제니퍼 샤리피가 소도시 규모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한데? 주류 사회에 통합되려는 신중하고 점진적인 노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일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다니 기만적이지 않아? 무장한 폐쇄 사회에 살면서 바깥세상과 거래해야 한다는 모순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야?”

“난 네게 지옥으로 꺼지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잘났어.”

잠시 후 토니가 덧붙였다.

“미안해. 마치 그들 같은 말이었어.”

“토니, 이걸 잘못된 방법이야.”

“취소하면 안 되냐고는 안 하니 고맙네.”

토니가 계획을 취소하지는 않을 것 같았다.

“토니, 우린 별개의 종이 아냐.”

“수면인들한테 그렇게 말해봐.”

“과장하지 마. 세상엔 우리를 증오했던 사람들이 있지만, 증오는 언제나 있지만, 그렇다고 포기하다니...”

“포기가 아냐. 우리가 창조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설, 정보, 이론, 법률 자문. 안팎으로 다닐 수도 있어. 우리가 둘이 안전한 장소를 만드는 거야. 우월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들에게 빚졌다고 생각하는 거머리들로부터 벗어난 곳 말이야.”

“빛지네 마네 할 문제가 아냐.”

“과연 그럴까? 레이샤, 제대로 한번 얘기해보자. 전부 다 말이야. 넌 야가리스트지. 뭘 믿어?”

“토니...”

“말해봐.”

그녀는 리처드에게 소개받았던 열네 살 소년의 목소리를 들었다. 동

시에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수술을 받고 난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레이샤를 무릎에 앉히고 그녀가 특별하다고 말하던 아버지가 떠올랐다.

“난 자발적인 거래가 상호 이익이 된다고 믿어. 영혼의 존엄함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탱하고, 노력의 결과물을 사회에서 상호 협력적인 거래를 통해 교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믿어. 이 과정의 상징이 계약이야. 우리는 가장 풍요롭고 가장 이익이 되는 거래를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해.”

“좋아.”

토니가 말을 잘랐다.

“그럼 스페인의 거지들은?”

“누구?”

“스페인처럼 가난한 나라에서 길을 걷다가 거지를 본다고 쳐. 그에게 돈을 줄 거야?”

“아마도.”

“왜? 그는 너와 아무것도 거래하지 않아. 그에게는 거래할 것이 없어.”

“나도 알아. 친절이나 동정이지.”

“거지가 여섯 명 있어. 모두에게 1달러씩 줄래?”

“아마도.”

“너라면 그러겠지. 거지가 100명 있는데 너한테는 레이샤 캠프의 돈이 없다면? 그래도 모두에게 1달러씩 줄래?”

“아니.”

“왜?”

레이샤는 애써 참았다. 킴링크를 끊고 싶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 토니는 바로 그 소수 중 한 명이었다.

“내 자원을 지나치게 소진하는 결과가 될 테니까. 내가 획득한 자원은 우선 나를 위해 쓰여야 해.”

“좋아, 그럼 이걸 생각해봐. 너와 내가 만들어진 —친애하는 의자매여— 바이오테크 연구소의 펠링 박사가 바로 어제...”

“누구?”

“수전 펠링 박사. 아, 세상에, 완전히 잊고 있었어. 네 아버지와 결혼했지!”

“소식이 끊겼어. 연구를 재개한 줄 몰랐어. 예전에 앨리스가 그러는데... 아무것도 아냐. 바이오테크가 뭐라고?”

“중요한 소식 두 가지를 막 발표했어. 카를라 더처가 1개월 된 태아의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거든. 불면은 우성 유전이야. 모임의 다음 세대 역시 잠들지 않을 거야.”

“모두 알고 있었잖아.”

카를라 더처는 세계 최초로 임신한 불면인 여성으로 남편은 수면

인이었다.

“다들 예상했어.”

“그래도 언론에서는 신나게 떠들겠지. 두고 봐. 괴물들이 번식한다! 다음 세대의 어린이를 지배할 신인종의 시작!”

레이샤는 반박하지 않았다.

“다른 소식은 뭔데?”

“슬픈 이야기. 처음으로 죽은 사람이 나왔어.”

긴장으로 배가 조였다.

“누군데?”

“시애틀에 사는 버니 쿤이야.”

모르는 사람이었다.

“교통 사고였어. 즉사였나 봐. 급경사를 올라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충돌했다. 운전을 시작한 지 몇 달 안 되었거든. 열일곱 살이었어. 어쨌든 그의 부모가 아들의 뇌와 시신을 바이오테크와 시카고 의대에 동시 기증했다는 게 핵심이야. 해부해서 지속적인 불면이 신체와 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처음으로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래.”

“그래야겠지. 어린데 안됐다. 그렇지만 그들이 뭘 찾아낼지를 왜 그렇게 두려워해?”

“나도 의사가 아니니 모르지. 하지만 뭐든 써먹을 만한 게 나온다면 우리를 증오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 우릴 공격할 거야.”

“토니, 과대망상이야.”

“천만에. 불면인은 정상인보다 더 차분하고 현실적이야. 너도 연구 결과를 봤잖아?”

“토니...”

“스페인의 골목에서 1달러씩 달라고 하는 거지를 100명 만난다면 어떻게 할래? 네가 싫다고 하면 너와 거래할 생산물도 없는 주제에 네가 가진 것에 격노하며, 질투와 절망에 사로잡혀 널 쓰러뜨리고 두들겨팼 거지들에게 돌려싸인다면?”

레이샤는 대답하지 않았다.

“레이샤, 사람이란 그런지 않으리라고 말할 작정이야? 그런 일은 결코 없다고?”

“있을 수 있는 일이지. 하지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냐.”

레이샤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웃기지 마. 역사 공부 좀 해. 신문 좀 읽어. 어쨌든 요점만 말하자면 그런 경우에 넌 거지들에게 무슨 빚을 지고 있지? 상호 이익인 계약을 믿는 선량한 야가리스트는 거래할 생산물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받기만 하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넌 야가리스트가...”

“뭐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해봐. 우리가 끈덕지고 비생산적인 빈민에게 무슨 빛을 지고 있어?”

“처음에 말한 대로 친절이나 동정아...”

“그들이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못해도? 왜?”

“그건...”

레이샤는 입을 다물었다.

“왜? 어째서 법을 준수하는 생산적인 인간이 별로 생산적이지도 않고 준법정신도 없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야 할까? 우리가 그들에게 빛을 줬다고 할 만한 철학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종교적인 근거가 있어? 넌 정직한 사람이니. 네 생각대로 말해봐.”

레이샤는 다리 사이로 고개를 숙였다. 토니의 질문이 그녀의 아래에서 크게 입을 벌렸다. 레이샤는 피하지 않았다.

“몰라. 단지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할 뿐이야.”

“왜?”

레이샤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토니가 입을 열었다. 도전적인 기색이 사라진 목소리로 마치 다독이듯 말했다.

“봄에 피난처 자리를 보러 와. 그 즈음이면 건물이 서기 시작할 거야.”

“싫어.”

“네가 왔으면 좋겠어.”

“싫어. 무장한 후퇴는 옳은 길이 아냐.”

“레이샤, 불면인들이 부유해지는 만큼 거지들은 점점 과격해져. 돈에 관한 얘기만이 아냐.”

“토니...”

레이샤는 그를 불렀다가 입을 다물었다.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켄조 야가이에 대한 기억만 간직한 채로 너무 많은 골목을 돌아다니지는 마.”

3월이 왔다. 살을 에는 차가운 바람이 찰스 강을 내리치듯 불었다. 리처드 켈러가 케임브리지에 왔다. 레이샤와는 3년 만의 만남이었다. 그는 그룹넷을 통해 레이샤에게 케임브리지에 온다는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얼음장 같은 추위에 맞서 눈만 내놓은 채 붉은 모직 스카프를 덮어쓰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보니 그가 현관을 막고 서 있었다. 레이샤 뒤에서 경호원이 긴장했다.

“리처드! 브루스, 괜찮아. 오랜 친구야.”

“안녕, 레이샤.”

몸집이 불어나고 어깨는 기억하는 것보다 넓게 벌어졌지만 얼굴은 분명 리처드였다. 나이는 들었지만 짙고 낮은 눈썹과 흐트러진 짙은 머리카락도 그대로였다. 그리고 턱수염을 길렀다.

“넌 여전히 예쁘네.”

레이샤는 집에 들어와 커피를 건넸다.

“일 때문에 왔어?”

그녀는 그룹넷을 통해 리처드가 박사 과정을 끝내고 캐리비안의 해양생물학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냈지만 작년에 일을 그만두고 넷에서 종적을 감추었다는 소식을 들은 터였다.

“아니, 놀러.”

그가 갑자기 웃음을 지었다. 예전처럼 어두운 얼굴을 한순간에 밝히는 미소였다.

“한동안은 잊고 살았어. 만족감은 있었지만, 우리 모두 꾸준한 작업에서 만족감을 쉽게 느끼지. 하지만 즐거움? 변덕? 충동? 레이샤, 마지막으로 바보 같은 짓을 해본 게 언제야?”

레이샤가 웃었다.

“샤워하면서 솜사탕을 먹었어.”

“진짜? 왜?”

“끈적끈적한 분홍색 패턴으로 녹을지 궁금했거든.”

“그랬어?”

“응. 예쁜 패턴이었어.”

“그게 가장 최근에 해본 바보짓이야? 언제데?”

“작년 여름.”

레이샤가 대답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흠, 내 바보짓은 더 최근이지. 지금이야. 난 단지 널 만나는 즐거움 하나만을 위해 보스턴에 왔어.”

레이샤는 웃음을 멈추었다.

“단순한 즐거움을 말하는 것치곤 거창한데.”

“그렇중.”

리처드가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레이샤가 다시 웃었다. 그는 웃지 않았다.

“레이샤, 난 인도에 있었어. 중국과 아프리카에도 갔지. 대체로 주로 생각하고 관찰하면서 지냈어. 처음에는 주목받지 않게 수면인인 척하며 다녔어. 그러다가 인도와 중국에서 불면인들을 찾아나섰

지. 알다시피 그쪽에도 여기까지 와서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불면인이 좀 있어. 그들은 대체로 사회에 받아들여져서 방해받지 않고 살더군. 나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지독하게 가난한 나라에서—그쪽에선 Y에너지가 대도시에만 공급되고 있어—불면인들의 우월함을 받아들이는 데 아무 거부감이 없는 이유를 고민했어.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미국에서는 점점 더 우리를 미워하는데 말이야.”

“이유를 알아냈어?”

“아니. 하지만 수많은 코핀, 마술, 캠폭들을 둘러보고 다른 사실을 깨달았어. 우리는 지나치게 개인적이야.”

레이샤는 실망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레이샤, 탁월함만이 가치 있다. 개인의 노력으로 뒷받침된 탁월함 말이다. 오직 그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야.

그녀는 리처드의 컵을 향해 손을 뻗었다.

“커피 더 마실래?”

그가 레이샤의 손목을 잡고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오해하지 마. 일에 관한 얘기가 아냐. 우리는 사적인 삶에서도 지나치게 개인적이야. 감정이 너무 이성적이고 고립되어 있어. 고립은 생각의 자유로운 흐름뿐 아니라 즐거움도 빼앗아가지.”

리처드는 레이샤의 손목을 놓지 않았다. 레이샤는 리처드의 눈을,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 깊이를 내려다보았다. 바닥에 금이나 어둠 혹은 돌이 함께 있는 탄광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어지럽고 무서운 기분이 들었다.

리처드가 속삭이듯 물었다.

“스튜어트는?”

“예전에 끝났어. 학부 시절 얘기지.”

자기 목소리 같지 않았다.

“케빈은?”

“아니, 한번도 그런 사이가 아니었어.”

“확실히는 몰랐어. 누군가 있어?”

“아니.”

리처드가 그녀의 손목을 놓았다. 레이샤는 두려운 듯 그를 살짝 살폈다. 그가 갑자기 크게 웃었다.

“즐기자, 레이샤.”

레이샤의 마음속에서 불분명한 매아리가 울려퍼졌다가 사라졌다. 레이샤도 웃음을 터뜨렸다. 가볍고 공허하고 여름의 분홍색 솜사탕 같은 웃음이었다.

“레이샤, 집으로 와. 또 심장 발작이 일어났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수전 멜링의 목소리에서 피로가 묻어났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의사들도 확실히는 몰라. 말로는 모르겠다고 하고 있어. 널 만나고 싶어 해서. 잠깐 공부를 설 수 있니?”

기말고사 준비가 막바지에 이른 5월이었다. 《로 리뷰》 교정과 마감은 이미 지났다. 리처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갑작스런 해류의 이상 변동으로 난감해진 보스턴 어부들에게 해양 컨설팅을 하느라 하루에 20시간씩 일했다.

“갈게요.”

시카고는 보스턴보다 추웠다. 나무에는 싹이 반쯤 돌아 있었다. 캄든

저택의 커다란 동쪽 창으로 보이는 미시건 호에서는 차가운 물보라가 하얗게 올라왔다. 수전은 그 집에 살고 있었다. 캠든의 경대에는 수전의 빛이, 현관 찬장에는 수전의 학술지들이 놓여 있었다.

“레이샤.”

캠든이 딸을 불렀다. 그는 나이 들어 보였다. 회색 피부, 폭 꺼진 뺨, 자신의 능력을 공기처럼 삶과 불가분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 떠오른 당황하고 초조한 표정. 방구석에 놓인 18세기풍 낮은 의자에 갈색 머리를 댄 작은 툭툭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앨리스.”

“안녕, 언니.”

“앨리스, 널 찾았는데…”

부적절한 말이었다. 찾아보긴 했지만 앨리스가 원치 않는다는 생각에 열심히 찾지는 않았다.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어.”

앨리스가 대답했다. 차분하고 상냥해 보였다. 6년 전에 펜실베이니아의 혈빛은 구름에서 있던 화난 앨리스와 달랐다. 캠든이 침대에서 고통스러워하며 몸을 움직였다. 그는 레이샤의 눈을 들여다 보았다. 아버지의 밝고 푸른 눈빛은 흐려지지 않았다.

“앨리스에게 와달라고 했다. 수전에게도. 수전은 얼마 전부터 함께 지냈어. 레이샤, 나는 죽어간단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진실을 존중하는 아버지의 성격을 아는 레이샤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사랑으로 가슴이 아파왔다.

“존 야보르스키에게 유언장을 남겼다. 아무도 미리 열어볼 수 없어. 그렇지만 너에게 직접 말하고 싶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재산을 팔아 유동자금으로 바꾸어왔어. 이제 내 자산 대부분은 처분 가능한 상태다. 앨리스, 수전, 엘리자베스에게 10분의 1씩 가고, 나머지는 너에게 남긴다. 그 돈의 잠재가치를 극대화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너뿐이니까.”

레이샤가 앨리스를 뺨 돌아보았다. 앨리스는 묘하게 차분하고 초연한 시선으로 레이샤를 마주 보았다.

“엘리자베스라고요? 우리… 어머니요? 살아 계셨어요?”

“그래.”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옛날옛날에!”

“그래, 그렇게 말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엘리자베스는 널 좋아하지 않았고, 네가 성취할 것들을 질투했지. 게다가 네게 줄 것이 하나도 없었어. 정서적으로 해만 됐을 거야.”

스페인의 저지들…

“아빠, 틀렸어요. 아빠가 잘못하셨습니다. 그분은 제 어머니세요…”

레이샤는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캠든은 움찔하지도 않았다.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넌 이제 성인이지. 원한다면 그녀를 만날 수 있어.”

그는 꼭 끼진 밝은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레이샤 주위로 공기가 내려찍듯 휘몰아쳤다. 아버지는 거짓말을 했다. 수전이 입가에 작은 미소를 띠고 레이샤를 살피고 있었다. 캠든이 딸을 실망시키는 모습을 봐서 즐거운 걸까? 그들 부녀의 관계를, 레이샤를 계속 질투했던 걸까?

레이샤는 마치 토니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진정이 되었지만 아버지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캠든은 흔들림도 양보도 없는 시선으로 딸을 마주 응시했다. 죽음의 눈앞에 두고서도 자신이 옳았다고 확신하는 남자의 눈이었다.

앨리스가 레이샤의 팔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레이샤에게만 들릴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아버지는 애길 끝내셨어. 언니도 곧 괜찮아질 거야.”

앨리스는 아들과 남편을 캘리포니아에 두고 왔다. 인공섬 휴양지 식당에서 줄서 있다가 만난 남편 벡 와트르스와는 2년 전에 결혼했다. 벡은 앨리스의 아들인 조던을 입양했다.

“벡을 만나기 전까진 정말 끔찍했어.”

앨리스가 초연한 어조로 말했다.

“있잖아, 조던을 임신했을 때 사실은 아이가 불면인 꿈을 꿔. 언니처럼 말이야. 매일 밤마다 그런 꿈을 꿔고, 아침에 일어나면 나처럼 멍청하고 별것 아닌 사람이 될 아이 때문에 입덧에 시달렸지. 에드하곤 2년 넘게 살았어. 애플레치안 산맥에서, 기억해? 날 보러 한번 왔지. 에드가 날 때리기 시작했을 때는 기쁠 지경이었어. 아빠가 봤으면 하고 생각했지. 최소한 에드는 나한테 손을 대 거라도 했어.”

레이샤가 목에서 소리를 냈다.

“조던이 다칠까 봐 겁이 나서 결국 그를 떠났어. 캘리포니아에 가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먹기만 했어. 86킬로그램까지 찼지.”

앨리스의 키는 165센티미터 정도였다.

“그리고 어머니를 만나러 집에 왔어.”

“나한테 얘기 안 했잖아. 어머니가 살아 계신 줄 알았으면서도 나한테 가르쳐주지 않았어.”

“어머니는 하루에 절반은 알코올 중독 교정소에 갇혀 계셔.”

앨리스가 직설적으로 말했다.

“언니가 만나고 싶다고 해도 안 만나주셨을 거야. 하지만 나하고는 만나셨고, 날 보자 ‘진짜 딸’이라며 키스를 퍼붓더니 내 치마에 토했어. 난 물러서서 치맛자락을 내려다보았지. 그리고 토사물이 묻어 마땅한 옷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 정말 추한, 끔찍할 만큼 형편없는

옷이었어. 어머니는 아빠가 오직 언니만을 위해 어머니와 내 삶을 영망으로 만들었다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어떻게 했는데?”

레이샤의 목소리가 떨렸다.

“집으로 돌아가서 입던 옷을 몽땅 태우고는 직장을 구하고 대학에 들어갔어. 살을 23킬로그램 빼고 조던을 놀이 치료 교실에 넣었지.”

자매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달빛도 별빛도 비치지 않는 창밖의 호수는 깜깜했다. 갑자기 떨기 시작한 쪽은 레이샤였다. 앨리스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얘기해줘...”

질문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렇지만 레이샤는 어둠 속에서 앨리스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이제는 레이샤의 존재라는 파괴적인 현실에서 받은 상처가 느껴지지 않는, 차분하고 초연한 앨리스의 지금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레이샤의 존재 자체가 상처였다.

“조던에 대해 얘기해줘. 이제 다섯 살이지? 어떤 애야?”

앨리스가 고개를 돌려 레이샤와 눈높이를 맞추었다.

“행복하고 평범한 보통 남자애야. 완벽한 보통 아이지.”

벤시 크레스는 1948년 뉴욕에서 태어나 1970년대 중반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현실적인 개연성을 갖는 근미래를 배경으로 한 우아하면서도 날카로운 작품들을 다수의 SF잡지에 발표해왔다. 유전자 조작과 같은 생명 공학 기술을 다룬 하드 SF에 여성적 감성을 결합한 중단편으로 특히 유명하다. 〈스페인의 거지들〉은 불면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불면인(sleepless)' 3부작의 출발점이 된 작품으로, 유전자 조작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사회적 불평등과 윤리적 논쟁을 이란성 쌍둥이 자매의 갈등과 성장을 통해 그려내 휴고상, 네뷸러상, 아시모프상, SF 크로니클상을 휩쓸었다.